

# 영원한 권위자는 없다?

맹 철 현

(한국UNISYS(주) SI사업본부 상무이사)

나는 지금까지 컴퓨터분야에서 일하게된 것을 한번도 후회해본 일이 없다.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시험을 쳤는데, 생각지도 않고, 그냥 무심코 써넣었던 지질학과에 제 2 지망으로 합격한 것이 오늘의 컴돌이가 된 동기가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의사가 되지 않고, 컴돌이가 된 것이 더욱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가끔 병원이라는 데를 가 보면, 의사가 돈도 잘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인지는 몰라도 늘 비정상적인 것만을 보고 사는 가엾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여려서, 좀 험한 것을 보면 현기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심성으로 어떻게 의사를 하려고 했을까 생각도 해보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질학과를 4년 다니면서 교수의 꿈을 키우던 내가 어느날 내가 할 일이 이런 분야가 아니지 않은가? 라는 회의를 느끼면서 나의 적성과 꿈과 현실을 비교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면서 컴돌이의 인생이 시작 되었다. 4년 공부한 것과 교수의 꿈을 버리고 대한극장 앞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있던 KCC교육장을 들어선 것이 컴돌이의 시작이었다. Assembler언어를 정명진선생님께 배우고, Fortran은 김영식 엘렉스 사장님에게 배운 것이 나의 첫 컴퓨터 인생 경험이었다. 밤 새우며 시간가는 줄 모르면서 프로우차트를 그리면서 컴퓨터에 빠져들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군 복무를 중앙경리단 전산처에서 하게 되었다.

나는 항상 컴퓨터를 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전산분야처럼 하기가 힘든 분야도 없다고 생각한다. 경영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이런 분야는 잘은 몰라도 그렇게 심하게 학문의 라이프 사이클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잘 공부하여 권위자가 되면 영원한 권위자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별 어려움없이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사실이 아니면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컴퓨터 분야는 기술, 이론, 그리고 응용분야가 나날이 발전하고, 변화하므로 그때 그때 따라가지 않으면 완전히 쉰세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분야에는 영원한 권위자가 없고, 항상 새로운 권위자가 나왔다가는 쉰세대가 되고, 또 새로운 권위자가 나오고 하는 변화가 많은 분야라고 생각한다.

한 분야에서 20여년 하면 의자나 돌리고 싸인이나하며 하

루를 즐길 수 있으면 오직이나 좋으련만, 매일 새로운 자료를 들여다 보고 새로운 기술을 수시로 배워야하니 나이 점점 드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변화의 세계속에 살면서 열심히 연구하고, 일하다 보면 머리가 늙지 않고, 늙어서 걱정하는 치매걱정도 없어지는 여러가지 득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기술이 어느 곳에선가 소개되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머리 히끗히끗한 중년들이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것이 참 보기 좋은 모습이라 생각되고 이러한 긴장이 인생을 축 늘어지지않고 살게 하는 자극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또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에 지난 일년과 지난 날의 모두를 비디오 되돌려보기처럼 리와인드해 보니 그것이 모두 행복이요 감사라 여겨진다.

순간순간 살아가며 호흡하는 것도 감사요, 일을 주심도 감사요, 가정을 주심도 감사요, 사랑하는 많은 사람과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주심도 다 감사로 생각할 때 인생은 행복한 것이고, 살 가치가 있는 것이며 사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된다.

컴퓨터를 통해서 많은 좋은 분들을 알게 됨이 또한 큰 감사라 생각하며 1996년을 보내면서, 2000년에 닥칠 날짜문제

가 비지네스가 될 것인지 아닌지하는 알팍한 고민을 뒤로하  
고 더 큰 감사거리를 찾아본다.